



관악초청강좌

2006년 2학기 관악초청강좌는 총 4회 개최되었다.

10월 12일에는 '말하기의 고통 그리고 희망'이라는 주제 아래 소설가 김훈씨의 강연이 있었다. 10월 26일에는 전 서울대학교 영문과 교수이기도 한 시인 황동규씨가 '삶의 실체-나는 왜 문학을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강연하였다.

11월 9일에는 전임 총장인 정운찬 경제학부 교수가 '한국 경제의 과거, 현재, 미래'라는 제목으로 강연하였다. 11월 23일에는 김학준 동아일보사 사장이 '기록의 발굴과 해방 5년사의 재조명'이라는 제목으로 강연하였다.

기초교육원에서 2004년 2학기부터 시작한 관악초청강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2주에 한 번을 원칙으로 목요일 4시 83동 305호에서 진행된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관악초청강좌 홈페이지(<http://gwanak.lecture.snu.ac.kr>)에 소개되어 있다.

글쓰기 콜로키움

제 4회 기초교육원 글쓰기 콜로키움이 지난 10월 19일(목) 개최되었다. 61동 207호 기초교육원 회의실에서 오후 4시 30분부터 6시 30분까지 진행된 이번 콜로키움에서는 ▲『대학국어』 외국인 강좌의 현황과 과제 ▲프로젝트 중심의 효과적인 영작문 교수법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제 5회 글쓰기 콜로키움은 오는 12월 6일(수) 61동 207호에서 열릴 예정이다.

기초교육포럼

제 1회 기초교육포럼이 지난 10월 12일(목) 12시부터 61동 207호 기초교육원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서울대 교양교육 방향 설정 및 개선 방안 탐색이라는 주제로 발표와 질의 및 토론이 진행되었다.

제 2회 기초교육포럼은 11월 9일(목) 12시부터 1회 때와 동일한 장소에서 진행되었다. ▲미국 문리대 학부 교육의 현황과 전망이라는 주제에 대해 하버드 학부와 칼튼 칼리지에서의 경험을 중심으로 한 발표와 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이 이어졌다.